

# “소상공인 보호 공공배달웹… 정부 지원 확대를”

## NEWS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 강기정 시장, 국회서 전진속 의원과 국비 지원 촉구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시장 정상화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국회에서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 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높은 민간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현재까지의 공공 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광주시민의 자체 자원 조달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속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힘을 모아 민간배달앱 독립운동 등을 벌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지자체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쳐 오면서 경제비침묵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

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배달앱은 단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며 “이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에 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힘을 모아 예산 지원 확대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왔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2개 (위메프,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5800여개소이다.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198만건, 누적 매출액은 488억원에 달하며, 공공배달앱 점유율도 높아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kwangnam.co.kr

### 시, 고시원 수도로 가정용 적용 세대분할 허용…20~30% 감면

광주시가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분할을 허용, 고시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춘다. 고시원 주 이용자가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인 만큼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고시원의 각 호수별 세대를 분할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분류, 수도요금도 일반용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의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인 점을 고려해 세대분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수도물 사용량이 하나의 계량기로 측정할 경우 분할세대별 수도물 사용량 15㎡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월 경우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약 20~30% 가량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월 사용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최대 5800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승기 기자 sky@kwangnam.co.kr

### 5월 전남 방문객 788만명 ‘역대 최다’

#### 전남 방문의 달 효과 특색…특화 여행상품 매출 21억

전남도가 여행업계 위기 극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5월! 전남 방문의 달’ 한 달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은 총 788만 명으로 역대 5월 관광객 중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방문의 달’ 시행 직전인 지난 4월(601만 명)보다 187만 명(30%), 지난해 5월(730만 명)보다 58만 명(8%) 늘어난 규모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공식기록으로 집계된 지난 5월 도

내 고속도로 통행량도 520만 대로, 전월보다 110만 대(27%)나 많았다.

5월 전남에서 열린 19개 축제의 방문객은 2024년보다 25만 명(20%) 늘어난 159만 명으로 집계됐다.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79만 명), 해남 우항리공룡박물관(15만 2000명), 함평 엑스포공원(17만 명), 담양 죽녹원(12만 4000명), 목포 해상 케이블카(9만 6000명) 등 주요 관광지 상당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



함평나비축제

수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이는 전남도가 ‘방문의 달’을 맞아 준비한 숙박·외계이전 빈값 할인, 특화 여행상품 운영, 관광지·체험시설 시군 연계 할인 등 파격적 프로모션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의 5월 신규 가입자는 5503명, 월매출은 2억 9700만 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2.3배, 5.2배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특화 여행상품을 운영한 39개 여행사도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2만 900명을 모집해, 5월 한 달 동안 2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담양 대나무축제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 방문의 달’을 통해 많은 관광객께 전남여행의 즐거움을 드리고, 여행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혜택과 특별한 관광상품을 많이 준비해 계절마다 전남 관광의 매력을 한껏 만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 공룡대축제

이현규 기자 gnnews1@kwangnam.co.kr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그날이 오면’ 제창하는 참석자들 10월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그날이 오면’을 제창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오 이사장, 우상호 정무수석, 우원식 국회의장, 박천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진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

## 포스코퓨처엠, 광양 읍촌산단에 전구체 공장 준공

### 연산 4만5000t 규모…배터리 핵심소재 자급체제 완성

포스코퓨처엠이 광양 읍촌 제1산단에 연산 4만5000t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며, 배터리 핵심소재의 자급체제를 완성했다.

포스코퓨처엠은 10일 광양 읍촌 제1산업단지 내에 조성한 전구체 공장의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을 비롯해 정인회 광양시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구체 공장은 약 2만

2000㎡ 부지에 연산 4만5000t 규모로 건립됐다. 이는 국내 전구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다. 그간 수입에 의존해온 전구체를 자급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산업의 공급 안정성과 전략적 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퓨처엠은 원료부터 반제품 양극재에 이르는 자급체제를 갖췄다”며 “양극재의 질적 성장을 넘어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질적 성장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앞서 가동 중인 양극재 공장에 이어 이번 전구체 생산라인까지 확보하면서 그룹 차원의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사실상 완성했다. 특히 읍촌산단의 물류 및 유틸리티 집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포스코퓨처엠 전구체 공장 준공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hkkjin@

## 서울국제관광전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 눈길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사무국장 박관수)은 지난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 전남도 홍보관에서 10월 개최되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대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활동에선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을 키우는 케이(K)-농업’을 주제로 박람회 공식 홍보전단 등 각종 홍보물 배포하고, 2025 국제농업박람회를 안내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여러 나라 방문객과 소통하며 스마트팜 지원, 유기가공식품 생산현황, 인공지능 첨단 융복합단지 조성 등 전남도의 농업정책을 통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미리보는 케이-농업의 현주소임을 부각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에 있는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유)차옴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침단연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nd@naver.com

-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